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선각된 정치인을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으로 모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독재자로 몰락되고 한국에서 자생된 무력지도자로 바뀌었다. 이들도 고통과 향락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고 비로소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성숙된 지도자가 정치를 펼치는 20세기의 흐름에서 농경문화의 어진 백성들은 어느덧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 서구사회의 민주시민과 같은 공동체사회의 한국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건축인인가?

모더니즘 열풍과 외국건축의 선진문화를 전수하듯 한 건축가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한국적 토양에서 일어난 사상적 갈등 속에서 건축을 깨닫는 세대,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위주의 시대조류인 급류타기에서 성장한 건축인들과의 세대교체... 여기에 대응하여 건축문화 회생을 부르짖는 새로운 건축세대의 움직임은 통해서 점차로 밝은 전망을 예상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어가고 있는 건축계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적 20세기의 흐름이라고 보여진다.

건축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환경을 서로 묶어내는 산물이다. 한국인이 우리 국토에서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빚어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건축일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본질을 가장 깊이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문헌으로 터득된 정보와 이론보다 그들을 대하면서 쓰러린 후회를 깊이 터득한 건축적 체험의 축적이며, 이를 다음 기회는 반드시 실패의 되풀이 없이 반영하며 희망을 밝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흔히 20세기는 모더니즘에서 시작되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으로 암기하며 다윈론, 은유법, 독창적 개성을 주장하며 시시각각으로 각양각색으로 급변하는 건축으로 과열경쟁은 주체와 객체의 주제가 제외된 한국적 세기말 현상의 건축양상이 보인다.

아름답다던 금수강산 자연경관 환경은 대형 고층건물로 전국이 매몰되고 산수화 한 폭의 그림같은 한국 고유의 땅에 어지럽게 뿌려놓은 해체성 건축재료의 누적으로 국토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듣게 된다.

미래는 첨단이라는 능력을 동원하여 푸른 자연으로 되돌려 놓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건축이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주인공인 인간의 이상적 생존권이 안주되는 건축을 창조하는 목표가 우리의 미래상일 것이다.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우리의 모더니티 - 20세기에 남겨놓은 문제들

The Modernity of Our Own-The Unsolved Problems of the Twentieth Century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by Jo Sung-Ryong

20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조 600년의 왕조시대가 끝나고 서구열강과 일본 중국의 패권주의의 각축장으로 변한 대한제국 말기의 상황과 일제 강점기, 해방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의 변화는 타자에 의한 강제적 아니면 타의적인 것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 특히 국토개발의 부문에서 살핀다면 군사정권 수립 후에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물론 근대화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며, 우리의 20세기처럼 타의에 의하여 서구화 근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정확한 평가는 역사가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국토를 복구하고 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해외 건설에 진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하면서 70년대에는 공업 단지건설, 중동 건설

특수(特需) 붐이 일어났다. 이어서 서울 강남지역의 초 대규모 개발과 그 영향으로 온 국토는 건설현장이 되다시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건축의 20세기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생겨난 여러 현상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젯더미에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무적인 찬사가 따르는 경제성장은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사실 '꿈'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먼 나라 얘기 같던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박람회도 열었다. 선진시민이 되는 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였다. 그래서 웬만한 갈등은 접어두고 오직 앞 길만을 쳐다보며 매진하였다.

계량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기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주택보급률도 높아지고 개인의 주거공간이 늘었음을 뿐 아니라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기관이 확장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개발

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60년대 이전의 절대 궁핍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분명 20세기 말의 획기적인 진보에 틀림없다. 또한 지난 반세기동안 어려움을 견디며 이 만큼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의욕과 땀으로 일궈낸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간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경제 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만큼 정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와 후유증이 도처에 나타나고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절대 궁핍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수 많은 문제를 속에서 우리는 이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마치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해 묵은 사건과 갈등을 잊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따위의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현실에 마주 서서 냉철한 머리와 의지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가 시작되는 아침에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몫이므로 싫지만 치부를 들어내 놓고 들여다 보며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함께 궁리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공공시설의 문제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여러 가지 국가 공공시설의 계획은 고도 경제성장의 기운과 함께 국민의 문화의식과 문화국가의 자존심을 건 아침적인 기획에서 추진되었다.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과천 현대 미술관, 국립박물관, 경부고속전철 등과 지방의 문화 시설들이 여러 권을 거치며 이룩되었다.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소홀하기 쉬운 문화 부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들은 문화 자체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보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서 그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전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의 위चना 규모, 그리고 건립시기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어 단지 파사와 실적위주로 추진된 중요 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화를 향수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가와 지식인은 이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했다. 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기념비적' 상징성 추구의 위험에 주의하여야 했다(한 외국잡지는 위에 들은 몇 개를 가리켜 '대통령의 프로젝트'라 빈정대었다).

거품 속의 호황, 실종된 정체성

80년대 올림픽 준비를 앞두고 도래한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국가나 국민으로 하여금 선진국 사회로 들어가는 환

상적인 비전을 갖게 하였고, 전통문체에 매달려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까지 곁들여 도시 공간의 본질적인 탐색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정치 권력의 비호 아래 재벌기업에 의해 추진된 수많은 개발 기획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민간 분야에서도 토지 투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초세 제도의 압력에 못 이겨 싸구려 상업시설이 급증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 때마침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미국식 포스트모더니즘의 파도에 무분별하게 휩싸여 우리의 자연이나 도시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란한 건물들이 도시와 산하를 메워갔다. 한강 상류를 위시하여 전국토가 위락시설과 상업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치 광택을 잡은 듯 들뜬 분위기 속에 거대화, 고층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8,9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우리의 기술 낙후성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외국 건축가의 설계를 그대로 수입(외국건축가의 이름도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해 들어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나타났다(무조건 막아보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80년대 일본은 외국 건축가들의 각축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수행된 프로젝트는 <간사이(關西) 국제 공항>이나 <토쿄(東京) 포럼>처럼 국제설계경기에 의해 선정된 몇 개의 공공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소규모의 상업 건물이었고 그것도 외국건축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철저하게 상업적인 가치를 표방하였던 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환란이후로 주춤해지긴 하였지만 국가단체와 재벌기업이 국내 건축가를 불신하고 일부 대규모 설계 조직들이 이러한 풍조를 이용해서 설계 시장을 독점하려는 분별없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시의 황폐-거대한 주거단지

70년 중반 이후의 주거단지 건설은 도시의 새로운 구조를 바꾸고, 도시의 풍경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대 사건이다. 주택 부족률을 줄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된 달동네 재개발, 도심 재개발, 한옥보존지구의 해제, 주택 200만호와 신도시(진정한 의미의 신도시가 아니라 베드 타운이다) 건설뿐 아니라 90년대 초의 준농림지역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논두렁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전국토의 초고층아파트시대를 열었다.

그 동안의 고층 주택환경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된 법령(주택건설촉진법)과 공급제도(분양가 제한 등)를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운용하면서(공동주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차별화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환경과 사회적 현상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변질된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개발 주체인 건설회사의 주거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이에 타성적으로 협동해온 건축사(가)의 무지가 대책 없는 오늘의 문제를 낳았다. 더구나 무계획적인 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자재와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더하여 만성적이며 뿌리 깊은 공무원의 부정으로 대규모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음은 무엇보다 접어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이벤트와 도시 정비

80년대 초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86년 아시아대회와 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대전 엑스포, 광주비엔날레를 진행한 사건은 아마도 20세기의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낸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적인 지력을 과시한 예이리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 체력향상에 기여하였음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서울에 중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사후 관리에서 결국 허점을 드러내 문제를 야기시키고, 급조한 도시 문화시설, 아직도 수준 이하인 공공시설, 도로와 인프라 스트럭처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첨예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 아래서 아시아 대회나 올림픽대회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올림픽이나 국제적 이벤트를 개최하였던 대부분의 도시(미국이나 서구대국들은 비교하기 어렵더라도, 이를 테면 바르셀로나나 세비아 같은 도시들)들이 문화적 이미지를 강하게 표방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변신할 수 있었던 예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우리 건축인들은 이 좋은 기회를 허망하게 놓쳤다.

건축가의 직능과 단체

정치 사회적인 영향과 압력이 건축인들을 옥죄고 있었지만 과연 그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1960년대에 건축사라는 전문 직능이 생겨나고 따로 세계건축가연맹의 산하단체로서 한국건축가협회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건축가, 건축사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운 직능 체제를 가진 나라도 없으며(다만 일본의 경우가 형식적으로 우리와 유사하나 내용에서는 사뭇 다르다) 벌써 몇 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여 사회의 이해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직능상으로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어려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만 얻으면 쉽게 설계 사무실을 차리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직능상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국가나 기업, 심지어 시민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워주는 "설계 기술자"로 전락해버렸다. 의사, 변호사 운운하지만 그러려면 그에 상응하는 직능적인 자격과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우선 쌓아야 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건축가연맹이 제시한 직능기준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건축사(가)는 건축 설계 기술자가 아니라 '공익'과 '공정성'을 기본 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직능인(Profession)'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사(가)의 도덕과 윤리의 회복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아울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협회 또한 건축사(가)의 권익과 책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진정한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함에도 지금까지 처럼 정부기관에 예속된 관변단체로 그 본래의 역할을 방기(放棄)하고 있어서는 방법이 없다. 또한 아무 쓸모 없이 집단적인 이기심에 의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구심성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도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일이다. 나아가 협회는 구성원인 건축사(가) 그 주체이므로 요구만 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참여하여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한다.

건축 교육, 건축가 교육

건축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건축가 양성을 위한 설계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대학은 얼마일까? 거의 대부분이 공과대학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커리큘럼과 교육 년 수는 국제건축가연맹에서 제시하는 5년제 전문과정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럼에도 설계 중심의 획일적인 건축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 공대에서 우선으로 해야 할 공학·기술교육조차 설계시간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편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할 공학 과정도 충분하지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사실 설계교육보다 이 쪽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대학의 10~20분의 1정도만 건축대학으로 바꾼다면 '건축가 교육'을 전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터인데 그 동안 파행적으로 비대해진 체제를 추스르기가 어려운 까닭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설계를 실무하는 건축가가 대학에서 설계교육을 맡아야 할 터인데도 획일적인 교수 임용규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그 반대로 대학교수의 설계 실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설계교육의 큰 걸림돌이다. 대학교육이 이러한 진데 평생 끊임없이 재충전하며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건축사(가)의 재교육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개인의 자질이 퇴행하는 일을 보완하는 방법도 없으려니와 국제적 변화에 무감각해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설계 경기의 난맥과 퇴행

60년대 이후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경기(현상설계)가 시행되었다. 남산도서관, 부산 역사, 국회의사당 등 당시로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들이 이 방식을 통하여 건축가와 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올림픽시설을 준비하던 80년대의 일련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경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후 크고 작은 공

공·민간 건축의 설계경기가 이어졌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행정 편의의 방편으로, 또 새로운 도시건축에 대한 도전이나 실험이기보다는 무난하고 평범한 제안을 선택함으로써 이 제도가 갖는 장점, 즉 새로운 제안, 신인 건축가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실무 경험이 없는 심사위원구성 때문에 평이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부 경기 참가 건축가들의 비윤리적인 태도와 발주기관의 무지한 횡포에 안이하게 대응하려는 태도가 맞물려 대부분의 설계경기가 파행적인 결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이다. 사업 시행자측의 안이하고 이기적인 설계경기 지침과 운영으로 쓸데없는 시간과 물자를 낭비할 뿐 아니라 경쟁 건축가들을 혼란시켜 극도로 나쁜 풍토를 조장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못 할 일이다. 턴키 시스템 등 실적 위주의 평가 방법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신인 건축인들이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이 된다.

20세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20세기는 무엇인가?
우선 서기력으로서의 20세기와 21세기의 차

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이라는 올해, 4332년과 1999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세기말이라든지 밀레니엄은 서양인들이 정해놓은 시간의 개념이며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시대에 바깥의 변화에 대하여 무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9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과 정보 통신, 위성방송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하고 일반 상용화되면서 우리의 사회와 인간의 삶은 이제 국경이나 나라의 개념을 어느 부분 수정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들어 서 있다.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새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위에 열거한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존중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큰 명분을 추구하는 일보다 작은 부분의 전문화된 지식과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실천하는 자세가 인정 받는 사회가 되어야 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끌어 안고 새로움으로 출발 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와 용기를 바라며.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지나온 20세기와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보며

Looking Back on the Twentieth Century, and Looking Forward to the Next One

민선주 / 위가건축사사무소
by Min Sun-Ju

“나는 내집이 사방으로 봉쇄되어있고 창문은 딱 막혀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모든 땅의 문화가 최대한 자유롭게 내집 주변에 부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문화에 의해서든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 부유하게 되기를 거부한다.”

〈마하트마 간디〉

무턱대고 본 원고청탁을 수락한 후, 내용을 준비하려다보니 20세기를 뒤돌아보고 21세기를 내다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원고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야할 것이며, 그러한 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본 주제를 맡은 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교보문고에서 제목에 20세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자들

을 찾아보니 117권이 등록되어 있었다. 시간을 내어 관련 서적들을 훑어보았다.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쓰여진 글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서술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20세기 초반부터의 사실들을 나열한 방식으로 쓰여있었다. 필자는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20세기의 건축적 사건들을 열거하기보다 디자이너로서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보기로 작정하였다. 특히 이번 글에서 쓴 방식은 필자가 원하는 내용을 다른 분야의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전하고, 필자는 그 글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첫 이유는 글을 읽다보니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아진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건축 내에서 논하는 내용들이 문화의 타 분야에서도 같이 거론되는 사항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글의 방법은 하바드대의 죠지 베어드교수가